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209>

JCCT 2024-7-23

## 문학과 드라마의 통섭 양상 연구 -1960년대 문학의 서사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Convergence of Literature and Drama -Focused on the narrativization of literature in 1960s

손미영\*

Son, Mi-young\*

**요약** 본 연구는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2005)으로 드라마가 1960년대의 한국사회와 문학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이 드라마는 세 명의 인물에 주목하여 1960년대의 역사적 격변과 문학의 대응을 형상화한다. 특히 실존 정치인인 캐릭터를 등장시켜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다. 따라서 드라마는 해설자와 인터뷰, 그리고 영상자료를 통하여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는 동시에, 정치사회적 사건들이 한국인의 내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김지하와 김승옥의 서사를 통해서 드라마는 1960년대 한국의 문학이 정치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부당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전달한다. 권력층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김지하와 내면의 풍경을 그려내는 김승옥의 방식으로 정치적 현실과 문학의 대응을 영상서사로 그려낸다. 이로써 이 드라마는 다소 전형적이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1960년대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문학의 의미는 무엇이었으며, 또한 한국인의 내면에 1960년대의 기억이 어떠한 흔적을 남겼는가에 관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다.

**주요어** : 문학, 시, 드라마,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 형상화, 김지하, 김승옥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rama “Still in Marronnier Park”(2005) to examine the strategies by which the drama communicates Korean society and literature of the 1960s to the public. The drama focuses on three characters to characterize the historical upheavals of the 1960s and the literary response. In particular, the drama tackles the historical events of the time head-on by introducing characters who are real-life politicians. Therefore, the drama explains historical events through narrators, interviews, and video footage, and at the same time, it helps us understand how political and social events affected the inner lives of Koreans. Through the narratives of Kim Ji-ha and Kim Seung-ok, the drama also conveys how Korean literature responded to unjust realities in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of the 1960s. Kim Ji-ha's rebellion against those in power and Kim Seung-ok's depiction of her inner landscape are used to portray the response of literature to political reality. Although the drama has the limitation of being somewhat typical, it raises meaningful questions about the meaning of literature in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of the 1960s and how the memory of the 1960s has left a trace in the minds of Koreans.

**Key words** : Literature, Poem, Drama, Korean Drama, <Still in Marronnier Park>, Kim Ji-ha, Kim Seung-ok

\*정회원,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 (주저자)  
접수일: 2024년 4월 19일, 수정완료일: 2024년 5월 22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0일

Received: April 19, 2024 / Revised: May 22, 2024

Accepted: June 10, 2024

\*Corresponding Author: myshon@kw.ac.kr

Dept. of Ingenium, Kwang woon Univ, Korea

## 1. 서론

테리 이글턴은 문학이 지닌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관하여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문학에서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준은 매우 이데올로기적이었으며, 특정한 사회의 가치를 구현하고 확산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1] 이글턴의 지적대로 문학은 한 시대와 사회의 가치와 공감을 구현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한국문학은 영문학과 달리 사회 현실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결하여왔다. 식민지시기에서부터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저항을 이어온 것이 한국문학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임은 부정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문학에서 정치적인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인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한국문화사를 영상화한 영상매체의 구성과 서사, 인물 선택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한국의 문화사를 영상화한 드라마 <명동백작>(2004)은 한국전쟁 직후 한국사회의 참혹한 현실과 전쟁의 상흔을 현실적·이념적 차원에서 극복하고자 하였던 문학과 예술가의 삶을 조망한다. 특히 김수영의 시와 생애를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경험한 시인의 내면에 자리한 ‘빨갱이 콤플렉스’와 4.19를 기점으로 표현되는 그의 사회에 대한 정치적 문제의식과 미의식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한국의 문학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문학가의 삶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자 맥락으로 기능함을 영상서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연작으로 제작된 EBS 문화사 시리즈는 명동을 중심 공간으로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문화풍경을 그려낸 <명동백작>(2004)를 시작으로, 1960년대 문화를 인터뷰로 담아낸 <100인의 증언-60년대 문화를 말한다>(2004), 다큐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2005), 다시 인터뷰로 구성한 <100인의 증언-70,80년대 문화를 말한다>(2005)로 이어졌다. 이는 장편 다큐드라마로 당대의 한국 문화사를 제시하여 시청자들의 교양적 접근성과 당대 문화 지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 연속 인터뷰를 통해서 당대의 문화를 좀 더 심도있게 제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다큐드라마의 형식으로 제작한 두 편 <명동백작>과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EBS의 교육적 방향성과 대중성을 선택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0-20년의 문학 및 문화사와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풍속을 영상으로 서사화하고 있다는 특별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분위기와 습속, 그리고 문화를 드라마화하였다는 매우 특수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EBS문화사 시리즈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첫 번째 기획인 다큐드라마 <명동백작>(2004)에 집중되어 있다. <명동백작>과 <지금도 마로니에는>을 중심으로 EBS 문화사 시리즈의 브랜드 전략과 가능성을 평가한 논의[2]를 시작으로, 드라마의 중심인물인 이봉구에 초점을 맞춰 그의 에세이와 드라마를 비교 분석[3]하였던 기존 논의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드라마의 구성과 인물의 서사화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사와 시인의 세계관을 영상화하고자 하였던 시도를 다각도로 읽어내고 의미화한 논의[4]~[5] 또한 시도된 바 있다. 이들 기존 논의는 풍부한 문화사적 맥락을 드라마 속에 녹여내는 전략과 영상매체 속 문학인의 표상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는 대부분 <명동백작>(2004)에 한정되어있거나, 이 드라마에 집중하고 있어 1950년대 문화사와 풍속에 주로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명동백작>에서는 4.19와 같은 역사적·정치적 맥락이 비교적 배면에 놓여있으므로, 전쟁 직후의 참혹함 속에서도 꽃을 피웠던 문화인들의 삶으로 형상화한 1950-1960년대 초반의 문화와 문학가로서의 정의와 내적갈등에 집중할 수 있었다. 즉, 한국문학의 주요한 역동성 중 하나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문학, 그리고 당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갈등과 딜레마는 드라마의 특성상 초점화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고는 EBS문화사 시리즈의 두 번째 기획이자, 군사 쿠데타 직후의 한국사회와 문화, 문학가를 조망한 <지금도 마로니에는>(2005)에 주목한다. 이 드라마는 군부정권의 출범, 한일협정, 삼선개헌과 같은 역사적·정치적 사건들이 이 소용돌이치는 사회적 국면 속에서 세 명의 청년 김승옥, 김지하, 김종태의 행보를 엮어낸다. 이를 통해 문학의 효용과 당위성, 정치와 문학, 사회와 문학의 목소리, 지식인과 사회 참여에 관한 인물들의 선택과 당대의 풍경을 함께 제시한다. 본고는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의 서사와 구성을 검토하여 1970-80년대 문화사와 정치-문학의 관계에 대한 드라마의 전략을 논하고자 한다. 이로써 문학과 정치라는

문제를 영상서사로 전달하는 방식과 그 효과, 드라마가 대중들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던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드라마의 구성 전략과 인물의 설정을 전작인 <명동백작>과 비교하여 검토한 후, 중심인물인 김지하와 김승옥의 서사를 통하여 1960년대 문학을 영상서사가 형상화하는 방식을 살핀다. 이로써 드라마가 1960년대 문학을 시청자들에게 설명하고 이미지화하는 전략과 그 한계 및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1960년대와 대학로

### 1. 형식의 반복과 정치적 맥락의 강화

1960년대는 4.19와 5.16,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이르는 격동의 시기였다. 청년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독재 정치가 종말을 내렸으며,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되리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듬해의 군사정변은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사회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다. 이후 30여 년간 지속된 군사정권은 문화예술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정신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5.16 직후부터 1970년까지의 시기를 다루는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국문학의 고민과 성취는 무엇이었는가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때문에 드라마는 당대 문학의 고민을 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변혁의 추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이중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드라마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 외에도 역사적 고증을 위한 자료 화면과 인터뷰, 그리고 상세한 해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서론에서 서술한 바대로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EBS 문화사 시리즈의 세 번째 기획이므로, <명동백작>의 형식과 구도가 본 드라마에서도 반복된다. 이를테면 <지금도 마로니에는> 역시 <명동백작>에 등장하였던 해설자(정보석 분)이 첫화부터 등장하여, 당대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한다. 해설자는 드라마의 주요 배경인 시대와 사회의 분위기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김승옥과 김지하라는 이른바 1960년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문학과 삶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인다. 또한 <명동백작>에서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당대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를 교차하여 드라마의 신뢰도와 이해를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인터뷰와 실제 영상자료의 활용, 그리고 해설자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면에서 이 드라마는 전작인 <명동백작>의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명동백작>에 비해 해설의 빈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캐릭터 활용과 구성에서도 전작과는 구별되는 지점을 지닌다. 이는 드라마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번째 방영분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난다. <명동백작>의 첫화는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명동에 돌아온 소설가 이봉구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명동을 중심으로 전후의 피폐한 정신세계에서 낭만을 피워낸 문화예술인들의 세계를 구현하겠다는 드라마의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이에 비해 <지금도 마로니에는>의 1회분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폐쇄된 대학교의 정문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혁명공약을 읽고 있는 김지하의 모습을 시작으로, 학교가 폐쇄된 대학로에서 시작한 첫화는 군인들이 지키는 정문 앞에선 학생들과 다방에 모여 5.16에 관해 목소리를 높여 의견을 나누는 장면들로 구성되었다. 즉,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정치에 나섰다는 선언문과 굳게 닫힌 대학교 정문을 지키는 군인들은 이 드라마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암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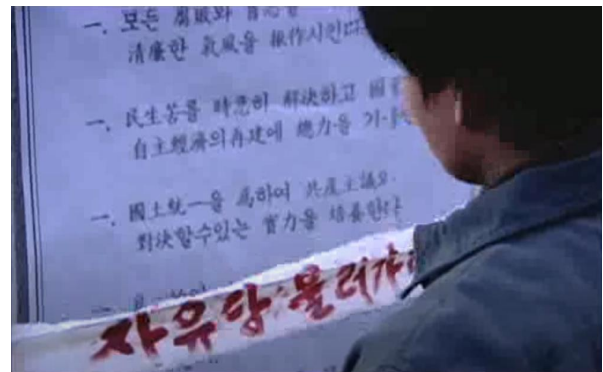


그림 1.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 첫 화의 장면  
Figure 1. A scene from the first episod of the drama <Still in Marronnier Park>.

당대의 사회 상황을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드라마의 첫화는 <지금도 마로니에는>이 1960년대의 문화풍경을 보여주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한국문학의 고민은 무엇이었는가에 관심을 쏟고 있음을 반증한다. 물론 교양적 성격이 강한 다큐드라마가 1960년대의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군부독재와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배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이 드라마는 동시대를 다루고 있는 영화

<췁시봉>(2015)의 사례처럼 화려한 당대의 대중문화 풍경을 먼저 제시한 뒤에 이를 탄압하는 엄혹한 정치적 현실에 관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우회하기보다 시작에서부터 전면화하는 전략을 택한다. 서사의 발단에서부터 정치적 맥락을 정면으로 다루는 방식은 분명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릴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본 드라마가 교육적 목적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시작점에서부터 강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지닌다. 즉, 당대의 정치 사회적 현실에 지식인 청년들이 대항하는 구도를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문학과 사회의 문제를 시청자들에게 진지하고도 묵직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전작인 <명동백작>에 비하여 무거운 분위기로 흐른다. 장소적 배경 또한 전작에 비해 치열한 논쟁과 긴장의 장으로 구성된다. 술에 취해 문학을 논하는 문인들의 공간인 낭만적인 명동에서 첨예한 이념 대결의 장인 대학로의 공간 이동이 그것이다. 이전하기 전의 서울대학교 문리학부가 있었던 대학로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애하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박정희 정부에 대항하는 학생들과 경찰의 지령을 받고 학내에 잠입한 스파이가 공존하는, 팽팽한 긴장과 격렬한 학생운동의 장소로 형상화된다. 삼삼오오 모인 인물들은 <명동백작>에서처럼 시를 읊거나 문학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현실의 사회문제에 대해 논쟁하고 정권을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등장하는 교도소와 남영동의 대공분실로 추측되는 장소는 본 드라마의 시사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물론 이 드라마는 <명동백작>의 형식을 반복한다. 해설과 영상 및 인터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해설자 역할을 맡은 배우도 변화 없이 기용하여 ‘문화사 시리즈’의 연속성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전작에 등장하였던 인물들과 ‘은성’과 같은 명동의 장소를 통해서 1950년대 후반에서부터 이어지는 문화사의 맥락을 이어간다. 다만, 주요 공간을 낭만의 거리 명동에서 이념적 외침과 긴장이 들끓는 대학로로 이동함으로써 군사정권 하의 엄혹한 시대 상황을 제시하고, 사회를 향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부각한다. 특히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청년들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인민혁명당 사건, 동백림 사건과 같은 정치사회적 사건의 한복판에 놓인 인물을 그려내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는 전작에 비해 이 드라마가 무거운 분위기로 흘러가게 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 2. 정치적 인물(캐릭터) 활용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는 1960년대의 정치사회적 사건을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문화의 흐름과 함께 정치적 문제에 관해 질문을 던진다. 이같은 드라마의 서사가 문학의 내면과 고민보다 사회적 문제의식에 집중하게 된 데에는 인물의 구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명동백작>은 문화사 시리즈라는 브랜드에 충실하게 문화예술계의 인사들에 집중한 바 있다. 그리고 김수영과 박인환이라는 두 명의 시인에 집중함으로써 문학과 세계의 관계에 관하여 서로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명동백작>이 세계를 반영하는 문학의 서로 다른 시선을 ‘문학’에 집중하여 그려내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서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김승옥과 김지하, 김현과 같은 문인뿐만 아니라, 김중태, 박재일, 장일순 등과 같이 당대에 사회 활동을 이어나갔던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극을 진행한다. 특히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61학번인 김중태를 드라마의 서사를 이어가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등장시키며, 에피소드에 따라 김승옥이나 심지어는 김지하보다도 많은 비중을 할애하기도 하였다.

실존하는 정치계 인사인 김중태의 활약은 ‘문화사 시리즈’를 자칭하는 다큐드라마의 전략으로는 다소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는 김중태를 중심으로 정면으로 사회에 부딪치고 불의에 대항하는 청년의 표상을 그려낸다. 이는 1960년대 한국의 정치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자 당대를 의미화하는 드라마의 전략으로 읽힌다. 김중태를 활용하여 1960년대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당대 한국사회에 팽배하였던 ‘먹고 사는 문제’의 딜레마를 설명한다. 경제개발을 우선하고 한국식 민주주의를 열어가겠다는 박정희 정부의 주장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당시 한국인들의 열망에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드라마는 김중태의 대사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침묵과 동조를 비판하는 한편으로, 해설자의 해설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팽배하였던 경제적 성장을 향한 열망을 설명한다. 이로써 현재까지도 평가가 엇갈리는 박정희 정부와 객관적 거리를 만드는 한편으로, 김중태의 서사를 통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선취한다.

이로 인해서 드라마는 후반으로 향할수록 김승옥과

김지하의 서사보다는 김중태의 서사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는 양상을 보인다. 김수영의 삶과 문학에 집중하였던 전작과 달리,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학생운동을 주도하였던 김중태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김지하에 초점을 맞추어 드라마의 후반부를 이끌어간다. 6.3 항쟁과 한일협정 반대투쟁, 제1차 인혁당 사건과 동백림 사건 등의 역사적 사건들이 학생들의 관점에서 진행된다. 한일협정을 전후하여 학생운동과 정부의 제압이 거듭 일어나던 시기였으므로, 드라마는 이 사건들을 빠르게 짚어나간다. 이에 따라 극의 전반부에는 가난한 대학생들이 모여 숙식을 해결하던 대학과 대학로가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투쟁과 학생운동의 장으로 변모하며, 그 중심에는 김중태가 위치한다.

긴박하게 계속되는 역사적 사건들을 드라마는 하나씩 꼼꼼히 살피기보다는, 민족주의자인 김중태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조망한다. 이를테면,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박정희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로 이어지기까지의 변화를 드라마는 김중태의 태도 변화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대학연합체를 주체로 시작된 한일협정반대운동은 반외세와 반일의 기초를 띠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민족주의가 일관되게 지속되었다.[6] 민족주의자의 성격을 지닌 김중태 또한, 극의 초반에는 정세를 안정시킨 후에는 물러나겠다는 군부의 주장을 의심하면서도 군인과 술을 마시며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인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6.3 항쟁과 한일협정반대운동을 거치며 박정희 정부를 향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변모한다. 드라마는 한일협정반대운동의 진행과 정부의 탄압을 배치하며 시청자로 하여금 김중태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는 김중태의 내적인 고뇌와 괴로움 또한 조명한다. 친구의 결혼식에서 철없는 청년처럼 웃던 그는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에 죄책감을 느낀다. 보수적인 아버지에 대한 죄스러움과 그를 지지하던 손혜영과 그의 아버지가 고초를 겪게 되자,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한다. 드라마는 김중태의 고뇌를 조명할 뿐만 아니라, 한일협정 반대운동 이후에 벌어진 동백림 사건과 민비연 사건에서 수배자 신분이던 김중태가 자수를 결정하는 장면을 영웅적으로 연출한다. 이로써 김중태를 1960년대 학생운동의 한 상징이자 대표로서 형상화하고, 당대 청년들의

내적 고뇌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중태라는 인물의 등장은 이 드라마가 바라보는 1960년대 한국사회의 내부에는 어떠한 열망과 고민이 있었는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1960년대의 정치적 변화와 가난을 극복하고 싶었던 당대 사회의 열망, 그 속에서 탄생한 1960년대 한국의 문학을 파악하기에는 적절한 전략이었다. 다만 <명동백작>에 비해서 문화풍속사적 형상화가 부족한 면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치적·역사적 사건이 긴박하게 일어났던 1960년대 중반을 다루고 있기에 정치적 배경 설명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맥락에 의해 본 드라마의 기획 의도인 1960년대의 문화 풍경과 당시 시민들의 내면이 다소 압도되었다는 한계는 명료하다.

### III. 드라마의 문학인 형상 분석:

#### 김지하와 김승옥의 대비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의 한국문학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신념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주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었다. 참여론과 순수론의 대두에는 문학이 삶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였던 것이다.[7] 이러한 측면에서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 속 김지하와 김승옥은 현실에 대응하는 당대 문학의 서로 다른 방향을 대표한다.

특히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후반부에서 김지하의 역할은 정치사회적 이념에 대한 적극적인 문학의 대응을 보여주는 대표로서 기능한다. 김지하는 정치적 현실에 정면으로 대항하며 이를 문학적 실천으로 이어나가는 시인의 형상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그는 현실의 모순에 예민하게 괴로워하는 한편으로, 사회의 불의에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심지 굳은 인물로 그려진다. 무엇보다 김지하의 내적 고뇌는 드라마의 초반부터 제시되는 그의 개인적 이력에 기인한 바 크다. 김지하의 아버지는 좌익 전력을 지닌 인물이다. 자수하여 전향하였으나, 마음 깊은 곳에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애정과 추억이 남아 있는 낭만적 기질의 인물로 그려진다.

김지하에게 아버지는 원망의 대상이었으나 애정의 대상이자 존경의 대상으로 극의 진행에 따라 변모한다. 극의 초반에서 김지하의 아버지는 좌익 전력으로 인해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을 하지 못하면서도 자살 시도로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인물이다. 김지하의 내면에 자리한 응어리는 아버지의 자살시도와 연좌제에서 기인한다. 불합리한 제도에 분노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여 몇 번이고 죽을 결심을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극이 진행될수록 김지하는 아버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는 특수한 가족사에서 착목하여 하위주체로서의 민중을 호명하는 김지하의 시적 변모[7]와도 닮아 있다. 드라마는 김지하의 내면 변화를 감지하게 하는 장치를 배치하는데, 바로 분홍색 구두이다. 김지하는 놀림을 받으면서도 아버지가 선물한 분홍색 구두를 끝까지 신고 다닌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애정이 점차 이해와 공감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특히 전혜린에 의해 분홍색 구두의 의미가 조명되며 시청자는 분홍색 구두가 아버지와 김지하를 연결짓는 하나의 장치임을 인식하게 된다. 붉은색이 아닌 분홍색은 아버지의 전력으로 인해 사회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김지하를 향한 아버지의 염려이자 아버지가 지닌 낭만인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르면 분홍색 구두를 신은 김지하는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의 조서를 쓰고,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단식투쟁과 민족문화 공연으로 시위문화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시인 김지하로 활동을 시작한다. 드라마 속 김지하의 변모와 시인 김지하의 탄생은 기실 아버지를 이해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6.3항쟁을 계기로 그의 아버지마저도 사회주의 운동 이력으로 인해 연행되어 고초를 겪는 장면은 대를 이어온 혁명가의 전통이자 비극으로 그려진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지하는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세상에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한다.

수감 후의 김지하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결단하면서부터 드라마는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흘러간다. 비록 실제로 결행하지는 못하였으나, 협정을 저지하기 위해 사제 폭탄을 제작하기에 이른다. 오히려 김지하는 자신이 돈키호테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며 기분 좋게 웃는다. 거대한 풍차를 향해 돌진하였던 돈키호테처럼 강력한 권력을 향해 정면으로 달려가는 열정과 정의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시인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이다. 이처럼 이 드라마는 온몸으로 세계를 향해 대항하는 열정을 김지하의 문학관이자 삶, 그리고 1960년대 중후반, 지식인 청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상으로 그려낸다. 1970년까지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이 드라마의 마지막 편이 김지하의 담시 「오적」과 함께 마치는 것 또한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회에 온몸으로 부딪히는 삶을 선택한 시인의 삶을 통해 1950년대에서 1960년대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내면적 고뇌와 슬픔을 보여주려는 드라마의 의도를 시사한다.

한편, 김지하는 아버지를 이해하며 사회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시인으로 자리매김하는 서사로 그려내는 데 반해, 김승옥의 서사는 조금 더 감성적인 시선으로 그려진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의 삶바느질로 동생들과 함께 성장한 김승옥은 어머니의 재봉틀로 대표된다. 김승옥 또한 삶에 대한 고뇌를 지니고 있으나, 그 양상은 김지하와는 전혀 다르다. 김지하가 살아야 하는 의미를 찾고자 방황한다면, 김승옥은 가족들의 안락한 삶과 문학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특히 김승옥의 내적갈등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큰 숨을 내쉬는 모습으로 주로 그려지는데, 이는 절벽 끝에 서서 기침을 토해내는 김지하의 격렬한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다소 감성적인 분위기로 그려진다.

특히 드라마의 후반부가 세계와 전면으로 대결하고 담시 「오적」을 완성하는 김지하의 서사에 집중되고 있다면, 전반부는 김승옥의 내적갈등과 등단한 뒤, 동향의 여대생을 짝사랑하는 감성적인 서사로 채워진다. 사회주의 운동 이력으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아버지와 같은 김지하의 격렬한 에피소드와 달리, 김승옥의 서사는 촛불에 의지해서 재봉틀을 돌리고 바느질을 하는 어머니에 대한 애상으로 채워진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은 그로 하여금 더 나은 성공의 길이 아닌, 소설가로 살아도 되는가에 관한 고민에 빠지도록 만든다. 심지어 그가 신춘문예에 응모하게 된 이유 또한 동생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인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지하의 서사와 김승옥의 서사는 대별적인 구도로 그려진다. 아버지의 이력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김지하와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서 글을 쓰고 현실과의 충돌에서 고개를 돌려야만 하는 김승옥의 구도인 것이다. 이로써 드라마는 모순적인 권력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김지하의 문학과 사랑하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 당대의 현실을 감내해야만 하는 김승옥의 문학으로 1960년대 문학 지리를 구현한다. 이는 1960년대의 현실 속 대항 담론으로서 ‘민중’을 발견하고 권력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김지하의



대응과 고통스러운 자기 세계를 형성하는 김승옥[8]의 구도로 형상화된다. 그리고 이 구도에 따라서 김지하의 시와 서사는 이른바 ‘남성적’이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김승옥의 소설과 서사는 감상적이면서도 여성의 영향 속에서 그려진다.

김지하의 서사가 당시 「오적」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떠올려보자. 분홍색 구두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아버지처럼 세계와 정면으로 대항하기를 선택한다. 그의 선택과 여정에는 자살을 시도할 만큼 괴로워하던 아버지 에 대한 기억과, 잘 모르면서도 그저 마르크스 주의가 좋았던 아버지의 대사가 반복적으로 활용된다. 이에 반해 김승옥의 서사에서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와 여성들이었다. 김승옥은 바느질하는 어머니와 재봉틀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자신이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대사를 자주 내뿜는다. 또한 그의 소설 「무진기행」이 창작되고, 드라마 속에서 극화되는 에피소드에서 그의 내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의 첫사랑이던 여대생이다. 드라마의 결말에서도 김승옥은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소설 창작에 전념하기로 한다. 그가 바랐던 삶을 완성한 것처럼, 김승옥의 가족을 비추는 드라마의 조명과 색감은 따스하고 시

선 또한 부드럽다.

이에 반해 김지하의 서사는 홀로 책상 앞에 앉아 격렬한 어조로 「오적」을 써내려가는 결말로 향한다. 마지막화인 32화에서 그는 임규택 소리꾼에 의해 가창되는 「오적」에 맞춰 춤을 춘다. 「오적」이 가창되는 동안 탈을 쓴 김지하의 춤사위와 함께 <지금도 마로니에는>의 서사가 플래시백으로 펼쳐진다. 가창이 끝나고 탈을 벗은 김지하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드라마는 완결된다. 1970년대의 벽두부터 민족문학에 관한 논의가 제출되었던 것처럼, 「오적」의 가창으로 마무리되는 드라마는 1960년대의 끝과 1970년대의 시작을 암시한다. 마치 한 편의 시이자 관소리처럼 1960년대의 격변과 문학의 변화를 담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드라마는 김지하와 김승옥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정형적인 구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1960년대 사회의 모순과 권력의 탄압 속에서 문화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한국인의 정신을 구성하였는가를 영상과 서사로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IV. 결 론

본고는 2005년 EBS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을 분석하여 드라마가 영상과 서사를 통하여 1960년대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문학의 고민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드라마는 전작인 <명동백작>에 비해 훨씬 엄숙하고 학구적인 어조를 띤다. 이는 문화예술인의 낭만과 예술적 열정에 집중하였던 전작과 달리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당대의 주요한 정치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드라마는 해설자의 해설을 통하여 6.3항쟁과 한일협정, 동백림 사건과 같은 정치적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해설하는 동시에, 실존하는 사회운동가이자 정치가인 김중태를 주요 인물로 등장시킨다.

이처럼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드라마의 형식면에서는 <명동백작>의 다큐드라마 형식을 차용하는 한편으로, 정치적 사건의 내부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로써 전작이 주요 공간인 ‘명동’을 중심으로 1950년대 중후반의 문화사적 풍경을 그려내었다면,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주요 공간인 대학로가 아니라 세 명의 인물을 중심에 두고 서사를 전



그림 2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 마지막화의 장면  
Figure 2. A scene from the final episode of the drama <Still in Marronnier Park>.

개한다. 이에 따라 이 드라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풍속을 조망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치적 사건이 한국의 문학과 한국인의 정신에 미친 영향을 짚어낸다. 특히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생인 김종태는 부조리한 현실과 권력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당대 지식인 청년의 표상으로 그려진다. 또한 김종태의 고뇌는 당대의 한국사회가 놓여 있던 민주주의와 경제 개발 사이의 딜레마를 설명한다.

또한 드라마는 두 명의 문인을 등장시켜 1960년대의 한국문학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당대를 대표하는 작가인 김승옥과 김지하를 통해서 한국문학이 시대적·정치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내부의 고민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준다. 다만 이 드라마의 한계로 짚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인 김지하와 어머니의 아들인 김승옥으로 다소 전형적인 구도를 그려내었다는 점이다. 드라마는 김지하의 서사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다. 김지하의 서사는 반복되는 회상 장면과 함께 아버지의 영향 속에서 진행된다. 권력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서사가 아버지의 영향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반면 김승옥의 서사는 어머니의 재봉틀 소리로 형상화된다. 김승옥의 고뇌는 대개가 가족과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 그리고 문학적 고민으로 그의 서사를 그려내는 드라마의 조명과 색깔 또한 김지하에 비해 부드럽고 따스하다. 이처럼 드라마는 다소 전형적인 구도로 두 문인을 그려내며, 정치적 현실에 대응하는 문학의 두 가지 방법을 김승옥과 김지하를 통해 서사화한다. 즉, 감성에 집중하여 피폐한 현실 사회의 풍경을 소설에 반영하는 김승옥의 방법과 부패한 권력층을 향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정면으로 대항하는 김지하의 방법이다.

이처럼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1960년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한국문학을 포착하는 한편으로, 당대의 정치적 문제를 속도감 있게 포착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인다. 또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였던 두 문인의 서사를 통하여 정치적 현실에 문학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형상화하는 한편으로,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인의 내면에서 군부정치 시대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물론 저항과 내면이라는 다소 전형적인 구도로 형상화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열정적으로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였던 지식인 청년들의 열정으로 1960년

대를 재구성하고, 드라마의 시선을 통해 한국문학과 당대 사회의 고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음은 이 드라마의 분명한 성취이다.

## References

- [1] Eagleton, Terry,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Blackwell, 1983.
- [2] Hong, Seong-il, “<The Count of Myeongdong> and <Now Marronnier> : Expectations and possibilities for EBS brand dramas”, *Visual Culture* No.10, pp.72-80, 2005.
- [3] Kwon, Kyong-mi, “The Cultural Class and the Narrative of the Space “Nostalgia Myeongdong””, *Journal of the Humanities* No.60, pp.275-301, 2008.
- [4] Son, Mi-young, “A Study on the Meaning of Korean Literature in Video Media –Focused on the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2004)”,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7 No.4, pp.195-202, November 2021.
- [5] Son, Mi-young, “A Study on the Image of Kim Soo-young in the Media –Focused on the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2004)”,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8 No.6, pp.89-96, November 2022.
- [6] Lee, Chung-hee, “Anti-movement against the Korea-Japan Diplomatic Normalization: Actors, Organizations and Ideologies”, *Journal of Global Politics* Vol.8 No.1, pp.5-35, 2015.
- [7] Kwon, Young-min,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Minumsa, 2002.
- [8] Ahn, Ji-young, “A Study about sense of history and meaning of the Minjung in Kim Chi-ha’s works”, *Korean Studies* No.47, pp.383-420, 2017.
- [9] Yu, Hong-ju, “A Study on the 1960’s Characteristics of Kim Seong-og’s Novel”, *The Journal of Modern Literary Theory* No.41, pp.213-229, 2010.

※ 이 논문은 2024년도 광운대학교 연구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